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Children's Emotional In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s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Situation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정 하 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순 형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a Na Chung

Professor : Soon Hyung Yi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otional inferences depending on the children's age, character's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situations. One hundred three subjects (34 3-year-olds, 33 5-year-olds and 36 7-year-olds) were recruited from 3 daycare centers and 1 elementary school. Eight stories, consisting of four personality traits (positive-'active', 'helpful', negative-'selfish', 'mean') and two emotional situations (equivocal and unequivocal situation), were presented with three pictures each.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repeated measure ANOVA,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3-year-olds showed lower scores of emotional inferences than the 5- and 7-year-old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5- and 7-year-olds. Children showed more personal inferential responses in the negative personality trait and equivocal situation.

Corresponding Author: Ha Na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Korea Tel 82-2-880-8752 Fax: 82-2-871-2506 E-mail: onc781113@naver.com

주제어(Key Words): 정서 추론(emotional inference),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 정서상황(emotional situation)

I. 문제 제기

정서추론이란 아동이 상황이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인 정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은 아동의 또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타인의 정서를 잘 예측하고 이해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Auerbach-Major & Queenan, 2003). 그러나 사회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의 의도를 잘 못 해석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Dodge, 1980).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단서 사용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어린 연령의 아동은 주로 타인의 얼굴표정, 몸짓, 음성과 같은 외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를 판단한다(Boone & Cunningham, 1998). 또한 아동은 스스로 학습한 문화적 스크립트(cultural script)를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타인의 정서를 예측하며 설명한다(Gordon, 1989; Lewis, 1989; Russell, 1989).

때로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문화적 스크립트와 같은 한 규범 정보만으로는 타인의 정서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 그 사람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의 아동은 정서반응이 단지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연령이 되면 아동은 타인 정서의 원인이 개인의 상황에 대한 내적 판단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고(Deutsch, 1974; Gnepp, 1983; Gove & Keating, 1979) 타인의 인지적 판단을 근거로 사람의 정서를 예측할 수 있다(Gnepp, Klayman, & Trabasso, 1982). 이처럼 아동이 상황에 대한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상황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Chandler & Greenspan, 1972),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개인 정보¹⁾는 아동이 타인의 조망을 고려해 추론을 할 때 필요한 정보로 이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 타인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중 행동을 유발하는 조직화된 내적 상태를 의미(Barenboim, 1985)하는 성격특성을 제시하여 아동의 정서 추론 경향을 살펴본 결과(Gnepp & Chilamkurti, 1988), 아동은 주인공의 성격 특성을 개인 정보로 활용하여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였다. 아동이 타인의 정서 추론시 주인공의 성격특성을 이용한다는 데에는 여러 연구들이 일치하지만, 구체적 성격특성의 종류에 따른 타인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는 불일치하였다. 일부 연구(Rholes & Ruble, 1984, 1986)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특성보다 긍정적인 특성 정보가 주어졌을 때 특성에 일관되는 예측을 하였다. 다른 연구(Gnepp & Chilamkurti, 1988)에서도 아동이 현재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추론 할 때 과거의 긍정적 성격특성을 더 잘 활용하였다. 그러나 Gnepp과 Gould(1985)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과거 사건이 부정적일 경우, 부정적 사건 정보를 현재 타인의 정서를 판단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추론하였다.

1) 개인 정보의 종류로는 규범적 정보, 성격특성 정보, 개인 특이성 정보, 개인의 과거 경험에 관한 정보가 있다(Gnepp, 1989). 첫째, 규범적 정보란 개인이 속한 문화의 규범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호랑이를 친근한 존재로 여기는 지역에서 성장한 아동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규범적 정보를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 둘째, 성격특성 정보란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개인 특이성 정보는 특정 개인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정서와 사건의 연합이 규범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제시했을 때 아동은 주인공의 특이한 관점을 고려하기도 한다(Gnepp et al., 1982). 넷째, 개인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개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아동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측할 때 긍정적 특성을 선택적으로 취하지만(Rholes & Ruble, 1986),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성격특성은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즉, 부정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격특성은 아동이 다른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 더 잘 기억해 내고 그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정서적으로 명확하지 아니면 모호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Denham, 1998). '생일파티', '악몽'과 같은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서를 유발할 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서적 판단이 모호한 상황일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타인에 대한 판단 시 상황의 모호성을 고려하는 능력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데, 아동이 상황의 모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추론한 것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갖는다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 부가적인 정보를 모색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Byrnes & Beilin, 1991).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정서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해주고 자신의 정서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지식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Gnepp & Klayman, 1992).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에게 상황에 따라 타인의 정서의 다양성을 판단하거나 또는 개인 정보를 탐색하는 양상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아동은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이미 주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 정서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추론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상황의 종류에 따라 타인

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아동의 정서 추론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4, 5세가 되면 아동은 타인의 몸짓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Boone & Cunningham, 1998).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의 정서 원인을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에 더 의존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에 대한 추론에서 행동, 얼굴표정, 몸짓, 음성이나 상황 등과 같은 외적인 단서를 사용하다가 점차 내적인 단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점차 표정, 행동, 상황 단서가 복잡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도 그것들을 통합하여 타인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추론할 수 있다(Hoffner & Badzinski, 1989). Harris, Donnelly, Guz와 Pitt-Watson(1986)은 아동이 6세에서 11세 사이에 정서에 대한 심리적 개념을 이해한다고 보았다. 즉, 나이 어린 아동은 내적 단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학령기 아동은 정서의 내적 상태를 인지하므로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상태를 중요한 단서로 사용한다. 그런데 과제를 쉽게 구성한 다른 연구(Gnepp et al., 1982)에서는 만 4세의 어린 아동도 성인과 같이 상황단서보다는 개인적, 규범적 정보와 같은 내적 단서를 더 선호하며 실제로 느끼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이 상황과 정서 사이에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개인의 성격 특성을 고려한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수 있다(Chandler & Greenspan, 1972; Gnepp, 1983).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특성귀인을 사용하는 경향은 증가하며, 만 6세 아동도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수 있다(Gnepp & Chilamkurti, 1988).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의 성격 특성을 활용한 정서추론을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이 보이는 정서추론의 발달적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추론은 연령에 따라 유이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추론은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3개 어린이집의 만 3세 유아 34명, 만 5세 유아 33명과, 1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7세 아동 36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은 총 103명이었으며, 그 중 남아가 53명, 여아가 50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월령을 살펴보면 만 3세 유아는 평균 43개월(37개월~47개월), 만 5세 유아는 평균 67개월(60개월~71개월), 만 7세 아동은 평균 88개월(84개월~91개월)이었다. 형제순위에서는 외동이를 포함한 첫째가 61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37명(35.9%), 셋째가 4명(3.9%), 넷째가 1명(1%)이었다. 형제 수에서는 형제가 1명인 아동이 71명(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가 없는 경우가 21명(20.4%), 2명인 경우가 10명(9.7%), 3명인 경우가 1명(1%)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76명(7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이 18명(17.5%), 전문·기술직이 5명(4.9%), 학생이 3명(2.9%), 생산·노동직이 1명(1%)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47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38명(36.9%), 판매·서비스직이 8명(7.8%), 전문·기술직이 6명(5.8%), 학생이 3명(2.9%), 생산·노동직이 1명(1%)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1세~35세가 46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36세~40세가 39명(37.9%), 41세~45세가 18명(17.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35세가 5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36세~40세가 34명(33%), 26세~30세가 7명(6.8%), 41세~45세가 6명(5.8%)이었다.

2. 연구 도구의 구성

1)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및 정서상황의 범주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긍정적 성격특성'과 '부정적 성격특성'으로 나누고, 정서상황을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아동의 타인의 성격특성 활용에 관해 연구한 Gnepp과 Chilamkurti(1988)는 성격특성을 '자상한, 재미있는, 정직한, 장난이 심한, 수줍음이 많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경애(1992)가 Gnepp과 Chilamkurti(1988)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예비조사 결과 '장난이 심한' 특성과 '수줍음이 많은' 특성은 다른 특성에 비해 반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동에게 명료한 인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도움을 주는, 정직한, 심술궂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만 3세 연령의 아동은 '정직함'보다 '활발함'을 긍정적 성격특성으로 더 쉽게 이해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아동에게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설명할 때 Gnepp과 Chilamkurti(1988), 박경애(1992)는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주인공의 행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만 제시하여도 조사 대상 아동이 과제인물의 특성을 이해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긍정적 성격특성(활발한, 자상한)과 부정적 성격특성(이기

<표 1> 연구 도구의 구성

성격특성의 범주	하위 범주	상황 종류
긍정적	활발한	명확한 상황
		모호한 상황
자상한	이기적인	명확한 상황
		모호한 상황
부정적	짓궂은	명확한 상황
		모호한 상황

적인, 짓궂은)에 대해 각각 2 가지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타인 정서에 대한 아동의 추론을 살펴보기 위한 정서상황 범주는 Gnepp, Mckee와 Domanic(1987), Gnepp과 Klayman(1992) 등을 참고하여 크게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했다. 명확한 상황으로 기쁨 정서를 선정하였다. 기쁨 정서를 선정한 이유는 만 3세의 아동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Borké, 1971). 만약 명확한 상황이 기쁨을 유발하는 명확한 상황이나 슬픔을 유발하는 명확한 상황 등으로 구분된다면 정서의 종류에 따른 효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확한 상황의 정서가 '한 가지 정서를 명확하게 유발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상황을 '엄마에게 선물을 받는 기쁨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모호한 상황의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상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엄마가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는 상황',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사탕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상황', '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이야기 상황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5인에 의해 명확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을 구분하도록 하고 일치한 상황만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약 10~15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어린 연령의 아동이 15분 이내에 과제를 수행할 있도록 총 8가지 상황을 선정하였다. 과제인물의 성별은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과 일치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은 표정을 보고 정서를 판단(Gnepp, 1983)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제인물의 표

정단서를 제외하여 아동이 상황단서 및 성격특성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2) 정서 추론 범주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을 살펴보기 위해 Gnepp 과 Chilamkurti(1988)와 Gnepp와 동료들(1987)의 척도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수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사용을 살펴본 Gnepp과 Chilamkurti(198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타인 정서 추론 유형을 주인공의 성격 특성이나 과거 행동에 근거한 추론, 마지막 사건에만 근거한 추론, 기타 추론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아동의 추론 응답 가운데 개인화된 추론, 상황적 추론으로 단순하게 분류되지 않았으며 기타 응답에 속하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Gnepp과 동료들(1987)이 추론 유형을 주인공의 평가(appraisal), 상황의 가정(hypothetical), 상황의 통합(elaboration of the situation), 반복, 모름으로 구분한 범주를 근거로 아동의 타인 정서 추론 범주를 <표 2>와 같이 개인화된 추론 반응,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상황적 추론 반응, 가상적 추론 반응으로 재구성하였다.

개인화된 추론 반응은 제시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추론의 근거로 언급하는 것을 의미한다(Gnepp & Chilamkurti, 1988).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은 아동이 현재 상황에 대한 과제인물의 인지적 평가를 타인의 정서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황에 대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언급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개인화된 추론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Gnepp & Chilamkurti, 1988; Gnepp & Gould, 1985).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착하

<표 2> 아동의 정서추론

범 주	설 명	예 시
		정 서 추 론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제시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언급	"착하니까, 울면 눈물을 닦아주니까."(기뻐해요)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현재 상황에 대한 과제인물의 인지적 평가를 언급	"떨어주는 것이 재미있으니까."(기뻐해요)
상황적 추론 반응	현재 상황의 사실적 정보를 언급	"토끼 인형을 사주셨으니까."(기뻐해요)
가상적 추론 반응	제공된 상황 정보 이외에 가상의 상황을 언급	"토끼가 무섭게 생겨서"(무서워해요)

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것 같아.”라는 추론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행동 예측에 적용한 개인화된 추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추론 과정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자상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 줄 것 같아.”로 성격특성 정보와 행동 예측 사이에 타인의 인지적 평가가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추론 범주에 인지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따로 분석하여 인지적 평가 추론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황적 추론은 현재 상황의 사실적 정보를 근거로 타인의 정서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Gnepp & Gould, 1985). 가상적 추론은 제공된 사실적 정보 이외에 아동이 가상의 정보를 근거로 타인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동이 언급하는 상황 단서는 이야기 상황에 제공된 사실도 있지만 특히 어린 연령의 아동은 스스로 상상하여 상황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기존 연구(Gnepp, 1989; Gnepp & Gould, 1985)에서는 반응의 90% 이상이 상황적 추론, 또는 개인화된 추론으로 판단되었고, Gnepp과 Chilamkurti(1988)의 연구에서는 기타 반응을 1% 미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아동의 상상에 근거한 상황적 추론도 전체 상황적 추론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이 상상하여 추론한 응답은 사실에 근거한 상황적 추론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상적 추론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타인 정서에 대한 추론 범주를 개인화된 추론 반응,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상황적 추론 반응, 가상적 추론 반응으로 구성하여 사용한다.

아동의 정서 범주는 하위영역이 4가지로 구성되고 각 이야기 상황에서 정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각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구분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평정된 아동의 정서 추론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두 평정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여 결정하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조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이야기 상황과 그에 따른 질문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만 3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1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Berndt & Heller, 1985; Feldman & Ruble, 1981)에 따르면 어린 아동에게 적합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나이 어린 아동도 성격특성을 활용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야기 내용 구성을 만 3세 유아의 이해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인형을 사용하여 ‘자상한, 정직한, 짓궂은, 이기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을 설명한 후 이해 질문과 특성 확인 질문을 하였다. 명확한 혹은 모호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과제인물의 정서를 선택하고 추론하도록 하였다. 1차 예비 조사 결과 다른 특성에 비해 ‘정직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른 특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이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대부분이 정답이어서 특별히 상황에 대한 이해 질문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인형을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려면 인형 조작, 녹음기 조작, 기록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과제로 이야기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2003년 8월 22일 만 3세 및 5세 유아 각각 2명, 8월 25일 만 7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그림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정직한’ 성격특성을 ‘활발한’ 성격특성으로 대체하여 ‘활발한’, ‘자상한’, ‘이기적인’, ‘짓궂은’을 성격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이해 질문은 제외하고 이야기 상황마다 특성 확인 질문, 정서 선택 질문, 정서 추론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령의 아동이 과제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정서 추론 응답은 개인적 추론 응답, 인지적 평가 추론 응답, 상황적 추론 응답, 가상적 추론 응답

으로 분류되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료실에서 연구자와 대학원 아동학 과정에 있는 연구보조원 3인이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른 아동의 타인 정서 추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과정은 먼저 아동에게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아동에게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상황(예: 정희는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씩씩하게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친구예요. 정희는 놀이터에서 모르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친구예요.)과 현재의 정서상황(명확한 상황 예시: 어느 날 엄마가 정희에게 예쁜 토끼 인형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하셨어요. 모호한 상황 예시: 어느 날 엄마가 "수정아, 친구들과한테 노래 좀 불러줄래?"라고 물었어요.)을 제시한다. 이야기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하여 순서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였다. 아동의 특성 이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특성 확인 질문(예: 이 친구는 씩씩한 친구예요? 부끄러워하는 친구예요?)을 하였다. 명확한 혹은 모호한 상황을 제시한 후 과제인물의 정서를 선택(예: 이 중에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하도록 하고 정서추론 질문(예: 왜 (화남)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을 하였다.

과제 소요 시간은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은 약 10분-15분이었고 만 3세 유아의 경우 약 20분 정도이었다. 8가지 이야기에 따른 질문은 동일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쌍체 t 검증(paired t-test)이 이용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분포를 살펴보고, 정서추론의 각 범주별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정서추론 각 범주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의 종류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연령,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및 정서상황의 종류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주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쌍체 t 검증을 사용하여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s)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아동의 연령,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정서추론 점수 전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1. 아동의 정서추론의 연령에 따른 차이

<표 4>와 같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와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에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F=29.67$, $df=2, 100$, $p<.001$)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증 결과에서 모든 연령간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3세 유아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5세 유아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자주 보였다. 이는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적 추론은 감소하고 개인적 추론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희태, 1989; Deutsch, 1974; Gnepp et al, 1982; Rothenberg, 1970)

또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F=4.93$,

〈표 3〉 연령,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아동의 정서 추론 점수

범 주 구 분	성격특성	정서상황	연 령			평균 (n=36)
			3세(N=103)	5세(n=34)	7세(n=33)	
			M(SD)	M(SD)	M(SD)	M(SD)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전 체	명 확	.00(.00)	.50(.63)	.83(.74)	.46(.65)
		모 호	.00(.29)	.67(.70)	1.21(.70)	.67(.75)
		평 균	.00(.15)	.58(.57)	1.02(.69)	.56(.66)
	긍정적	명 확	.00(.00)	.39(.61)	.78(.80)	.40(.66)
		모 호	.00(.24)	.67(.78)	1.03(.81)	.59(.77)
		평 균	.00(.12)	.53(.54)	.90(.74)	.50(.65)
	부정적	명 확	.00(.17)	.61(.79)	.89(.85)	.51(.77)
		모 호	.18(.41)	.67(.82)	1.39(.73)	.74(.85)
		평 균	.00(.22)	.64(.66)	1.14(.72)	.62(.73)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전 체	명 확	.28(.45)	.58(.47)	.39(.49)	.41(.48)
		모 호	.41(.51)	.58(.60)	.22(.35)	.40(.51)
		평 균	.35(.41)	.58(.41)	.31(.32)	.41(.40)
	긍정적	명 확	.26(.51)	.58(.66)	.42(.65)	.42(.62)
		모 호	.56(.75)	.55(.67)	.22(.42)	.44(.64)
		평 균	.41(.51)	.56(.46)	.32(.40)	.43(.47)
	부정적	명 확	.29(.58)	.58(.75)	.36(.64)	.41(.66)
		모 호	.26(.45)	.61(.83)	.22(.42)	.36(.61)
		평 균	.28(.43)	.59(.66)	.29(.40)	.38(.52)
상황적 추론 반응	전 체	명 확	.56(.73)	.55(.58)	.60(.57)	.57(.62)
		모 호	.38(.54)	.38(.48)	.38(.45)	.38(.49)
		평 균	.47(.57)	.46(.42)	.49(.45)	.47(.48)
	긍정적	명 확	.50(.83)	.64(.70)	.58(.65)	.57(.72)
		모 호	.18(.46)	.30(.59)	.44(.61)	.31(.56)
		평 균	.34(.52)	.47(.47)	.51(.50)	.44(.50)
	부정적	명 확	.62(.78)	.45(.67)	.61(.73)	.56(.72)
		모 호	.59(.82)	.45(.66)	.31(.52)	.45(.68)
		평 균	.60(.73)	.45(.55)	.46(.55)	.50(.61)
가상적 추론 반응	전 체	명 확	.24(.41)	.17(.27)	.11(.24)	.17(.32)
		모 호	.15(.34)	.18(.30)	.00(.23)	.14(.29)
		평 균	.19(.31)	.17(.24)	.10(.20)	.16(.26)
	긍정적	명 확	.32(.59)	.15(.36)	.11(.32)	.19(.44)
		모 호	.21(.48)	.21(.42)	.14(.42)	.18(.44)
		평 균	.26(.46)	.18(.27)	.13(.30)	.19(.36)
	부정적	명 확	.15(.44)	.18(.39)	.11(.32)	.15(.38)
		모 호	.00(.38)	.15(.36)	.00(.23)	.00(.33)
		평 균	.12(.28)	.17(.30)	.00(.19)	.12(.26)

df=2, 100, p<.01)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은 만 3세와 만 5세간, 만 5세와 만 7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지만, 만 3세와 만 7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

<표 4>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변량분석

범주구분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개인화된 추론 반응	피험자간	연령	65.82	2	32.91	29.67***
		오차	110.91	100	1.11	
	피험자내	특성	1.71	1	1.71	10.79***
		특성×연령	.68	2	.34	
		오차	15.81	100	.16	
		상황	4.33	1	4.33	17.96***
		상황×연령	1.68	2	.84	
		오차	24.09	100	.24	
		특성×상황	.00	1	.00	.07
		특성×상황×연령	.92	2	.46	
오차	19.31	100	.19			
인지적 평가 추론 반응	피험자간	연령	5.75	2	2.88	4.93**
		오차	58.31	100	.58	
	피험자내	특성	.19	1	.19	.55
		특성×연령	.46	2	.23	
		오차	35.10	100	.35	
		상황	.00	1	.00	.04
		상황×연령	1.57	2	.79	
		오차	35.15	100	.35	
		특성×상황	.12	1	.12	.48
		특성×상황×연령	.83	2	.41	
오차	25.80	100	.26			
상황적 추론 반응	피험자간	연령	.00	2	.00	.02
		오차	93.42	100	.93	
	피험자내	특성	.43	1	.43	1.38
		특성×연령	2.09	2	1.05	
		오차	31.25	100	.31	
		상황	3.65	1	3.65	10.75***
		상황×연령	.00	2	.00	
		오차	34.00	100	.34	
		특성×상황	.61	1	.61	2.54
		특성×상황×연령	1.36	2	.68	
오차	23.85	100	.24			
가상적 추론 반응	피험자간	연령	.60	2	.30	1.15
		오차	25.96	100	.26	
	피험자내	특성	.475	1	.475	3.74
		특성×연령	.33	2	.17	
		오차	12.70	100	.13	
		상황	.00	1	.00	.77
		상황×연령	.19	2	.00	
		오차	11.22	100	.11	
		특성×상황	.00	1	.00	.27
		특성×상황×연령	.12	2	.00	
오차	14.34	100	.14			

*p<.05, **p<.01, ***p<.001

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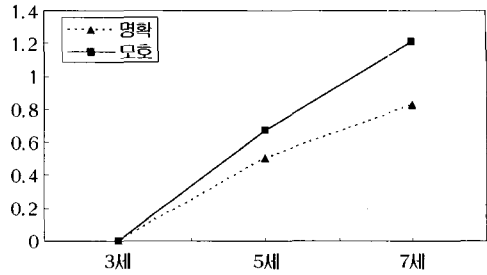
2.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정서상황에 따른 아동의 정서추론 차이

〈표 4〉와 같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와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0.79, df=1, 101, p<.001$). 즉, 아동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타인의 긍정적 성격특성보다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한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 타인의 부정적인 특성 정보를 더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Hodge, 1974; Richey et al, 1967) 아동의 경우 타인의 긍정적인 특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연구 결과(Gnepp & Chilamkurti, 1988)와는 불일치한다.

정서상황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명확한 상황에서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와 모호한 상황에서 반응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17.96, df=1, 101, p<.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확한 상황에서 상황적 추론 반응 점수와 모호한 상황에서 상황적 추론 반응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75, df=1, 101, p<.001$). 즉, 아동은 명확한 상황에서 상황적 추론을 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개인화된 추론을 많이 하였다. 이 결과는 이야기 정보가 한 사건에 대해 전형적 반응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황이 애매한 경우 아동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Gnepp, 1989).

한편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연령간, 상황적 추론 반응에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48, df=1, 101, p<.05$).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7세 아동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라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



〈그림 1〉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에서 정서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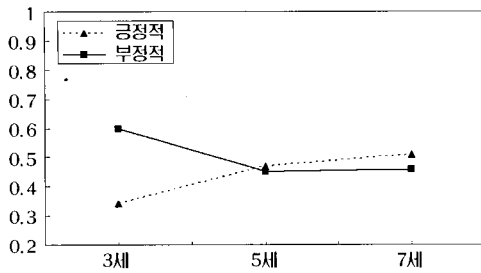
〈표 5〉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 반응 단순 주효과 분석

집 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t
3세	명확	34	.00	-1.41
	모호	34	.29	
5세	명확	33	.50	-1.41
	모호	33	.70	
7세	명확	36	.83	-5.35***
	모호	36	1.21	

*** $p<.001$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5.35, df=35, p<.001$). 반면에 만 3세 유아와 만 5세 유아의 경우 정서상황의 종류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반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점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Gnepp et al, 1987; Gnepp & Klayman, 1992)에서도 아동이 상황의 모호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만 8세 경에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불일치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상황의 모호성에 대한 이해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적 추론 반응에서 과제인물의 성격특성과 연령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35, df=2, 100, p<.05$). 〈표 6〉에서 만 3세 유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에 상황적 추론 반응 점수가 긍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의 추론 점수보다 높았다($t=-2.94, df=33, p<.01$). 반면,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의 경우에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에 따라 상황적 추론 반응의 차이가 나



〈그림 2〉 아동의 상황적 추론 반응에서 과제인물의 성격 특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표 6〉 아동의 상황적 추론 반응 단순 주효과 분석

집 단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t
3세	긍정적	.34	.52	-2.94**
	부정적	.60	.73	
5세	긍정적	.47	.47	.15
	부정적	.45	.55	
7세	긍정적	.51	.50	.60
	부정적	.46	.55	

**p<.01

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과제인물의 성격특성, 정서상황,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만 3세, 만 5세, 만 7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을 그림과 제로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나이가 어린 유아는 나이가 많은 아동과 타인의 정서를 추론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 만 3세 유아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 5세 유아와 만 7세 아동의 경우 개인화된 추론 반응을 보였다. 또한 만 5세 유아의 경우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

다. 이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각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조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 정서 추론 시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인지적 평가를 유추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5세 유아의 경우에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정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이 만 4, 5세 경이 되어야 마음이 표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Perner, 1999)는 맥락에서 볼 때 아직 마음론이 발달하지 않은 만 3세 아동의 경우 상황을 평가하는 과제인물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정서추론은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즉, 아동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타인의 긍정적 성격특성보다는 부정적 성격특성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였다. 아동은 주인공의 과거 경험이나 행동이 부정적인 경우에 더 인상 깊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추론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 3세 아동의 경우 과제인물의 성격특성이 부정적일 때 상황적 추론을 더 많이 하였다. 즉, 만 3세 아동은 과제인물의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 주인공의 정서의 원인을 현재 사건에서 추론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는 어린 연령의 아동도 개인화된 추론 능력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과제인물의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된 경우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아동의 기억능력을 측정된 연구(우현경, 2005)에서 아동은 긍정적 정서상황을 경험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자유 회상에서 더 높은 기억 정확성을 보였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는 유아의 정확한 회상을 촉진하기 때문에 (Goodman, Hirschman, Hepps, & Rudy, 1991)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성격특성이 제시되었을 때 아동이 그 정보를 선택하여 추론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의 특성 때문인지 성격특성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선호하는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은 정서상황이 명확한 경우와 모호한

경우에 따라 정서추론을 다르게 한다. 즉, 아동은 명확한 상황에서 상황적 추론을 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개인화된 추론을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는 상황 정보가 정서의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적 추론을 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조망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 정보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개인화된 추론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상황에 따른 개인화된 추론 점수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이 과제인물의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한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단서 활용 능력이 만 6세 연령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Lagattuta, Wellman, & Flavell, 1997)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과제인물의 개인정보를 더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만 5세와 만 7세 사이에 타인 정서를 판단하기 위해 정서상황의 명확성 여부를 고려하여 상황정보와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론하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추론을 다르게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때 타인의 부정적 성격특성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며 모호한 상황에서 그 추론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만 3세 유아와는 달리 정서추론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만 5세 연령을 기점으로 발달적 차이가 크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정서추론 시 타인의 개인 정보와 상황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동시에 살펴 보았다. 둘째, 타인의 성격특성을 활용한 추론 연구는 대부분 만 6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만 5세, 만 7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유아기부터 아동기로 전이하는 시기의 아동의 타인 정서추론의 초기 발달 경

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셋째, 대다수의 연구들이 아동의 타인에 대한 추론을 단순한 범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범주보다 구체적으로 개인화된 추론, 인지적 평가 추론, 상황적 추론, 가상적 추론으로 세분화하여 유아의 사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아동의 추론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 3세 연령의 아동의 추론 능력과 관련해 언어 능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정서추론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아동의 타인에 대한 추론 시 보다 복합적인 단서 사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희태(1989). 아동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1992). 특성정보가 타인의 행동, 정서 예측능력에 주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현경(2005). 경험사건의 정서적 특성과 암시방식에 따른 유아의 기억 정확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enboim, C. (1977).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interpersonal cognitive system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48, 1467-1474.
- Berndt, T. J. & Heller, K. A. (1985). Measuring children's personality attributions: 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versus trait ratings and predictions of future behavior. In S. R. Yussen (Eds.),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pp. 37-60). Orlando, FL: Academic Press.
- Boone, R. T. & Cunningham, J. G. (1998). Children's decoding of emotion in expressive body movement: *The development of cue attunement*.

-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07-1016.
- Borke, H. (1971). Internati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3-269.
- Byrnes, J. P. & Beilin, H. (1991). The cognitive basis of uncertainty. *Human Development*, 34, 189-203.
- Chandler, M. & Greenspan, S. (1972). Ersatz egocentrism: A reply to H. Borke. *Developmental Psychology*, 7, 104-106.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_____,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 Deutsch, F. (1974). Female preschoolers' perception of affective response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videotaped episodes. *Developmental Psychology*, 10, 733-740.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Feldman, N. S. & Ruble, D. N.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 perception: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In S. S. Brehem, S. M. Kassin, & F. X. Gibbons (Eds.),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nepp, J. (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05-814.
- _____. (1989). Children'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 C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_____. & Gould, M. E. (1985).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inference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emotional reactions in light of their prior experiences. *Child Development*, 56, 1455-1464.
- _____. & Klayman J. (1992). Recognition of uncertainty in emotional inferences: Reasoning about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45-158.
- _____, _____, & Trabasso, T. (1982). A hierarchy of information sources for inferring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3, 111-123.
- _____, Mckee, E., & Domanic, J. A. (1987). Children's use of situational information: Understanding emotionally equivocal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14-123.
- Goodman, G. S., Hirschman, J. E., Hepps, D., & Rudy, L. (1991). *Children's memory for stressfu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7(1), 109-157.
- Gordon, S. L. (1989).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s: Emotional culture, competence, and exposure.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19-34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ve, F. L. & Keating, D. P. (1979). Empathic role-taking precurs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94-600.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s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odge, B. H. (1974). Effect of valence on relative weighting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78-381.
- Hoffner, C. & Badzinski, D. M. (1989). Children's

- integration of facial and situational cues to emotion. *Child Development*, 60, 411-422.
- Lagattuta, K. H., Wellman, H. M., & Flavell, J. H. (1997).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thinking and feeling: Cognitive cuing and emotional change. *Child Development*, 68(6), 1081-1104.
- Lewis, M. (1989).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n's knowledge of emotional scripts.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50-37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ner, J. (1999).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London: MIT Press.
- Rholes, W. S. (1986). Children's impressions of other persons: the effects of temporal separa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Child Development*, 57, 872-878.
- Rholes, W. S. & Ruble, D. N.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Child Development*, 55, 550-560.
- Richey, M. H., McClelland, L., & Shimkunas, A. M. (1967). Relativ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information impression formation and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322-327.
- Rothenberg, B. B. (1970).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intrapersonal comfort and intellectual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2, 335-350.
- Russell, J. A. (1989). Culture, script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293-31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3월 14일 채택)